

‘청주’로 새로 태어나는 주요 선사유적의 조사와 연구의 전개

이윤조^{*,**}

-
- I. 머리말
 - II. 청주 두루봉동굴유적
 - III. 청주 소로리유적
 - IV. 청주 만수리유적
 - V. 청주 아득이 고인돌유적
 - VI. 청주지역 선사문화와 그 의미
 - VII. 맺음말
-

I. 머리말

광복 후 우리나라의 선사문화 연구조사는 우리 충청지역에서 그 단초를 열어놓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1957년 11월, 김정학 교수(당시 고려대 박물관장)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C. S. Coon 교수와 단양 뒤뜰굴에서 하루 조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각기 미국과 한국 잡지에 소개를 하였다.

** 이 글을 『中原文化論叢』에 소개한 신영우 교수와 김의환 소장께 사의를 드린다.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아시아구석기학회 명예회장·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물론, 이 조사는 단 하루 만의 시굴조사였지만, 여기에서 석기 몇 점을 습득하였고, 또 이 유적이 우리나라 구석기의 존재가능성을 분명히 하여서 그 뒤에 손보기 교수(연세대 박물관장)의 공주 석장리유적(1964~74)과 제천 점말 용굴(1973~1980)의 구석기의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되어, 금강과 남한강가에 발달된 구석기문화의 발달상과 그 의미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한편, 고인돌유적 조사도 국립박물관(관장 김재원)에서 실시한 제천군(시) 청풍면 황석리에서 첫 조사가 있던 1962년 이후로, 전국 주요 구석기유적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당시까지 전무하였던 고인돌 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앞서 든 단양 뒤뜰 굴의 동굴유적조사는 제천 점말 용굴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 관심은 우리 청원지역에서도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봉 동굴조사이다. 그리고 고인돌 조사도 대청댐 수몰지역조사로 찾게 된 아득이 고인돌 조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얻게 하였다.

이처럼 금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사유적들은 동굴유적으로서의 두루봉 동굴과, 고인돌 유적으로서의 아득이 고인돌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금강에 발달된 한대유적인 소로리유적과 만수리유적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학계에 그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이들 유적에 대한 위상을 높이 평가받게 되는 큰 계기를 만든 것이 청원 지역의 선사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 유적조사가 1970년대부터 크게 활발해진 산업화(광산 활동)와 건설화(댐과 과학단지 건설)에 따른 조사라는 점에서 이들 조사가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학술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제발굴로만 끝나버려서 고고학상으로는 무척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고, 또한 그것이 현실로 되어 버렸다.

이제 ‘청원(淸原)’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으로 남고, ‘청주(淸州)’로 새로 태어나 지금까지 학계에 ‘청원 ○○○유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청주 ○○○유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니 여기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남겨서 역사의 자료로써 남기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각 유적마다 조사과정과 연구의 전개를 사진과 도판, 그리고 발표한 논문들을 소개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주 두루봉동굴유적

1. 조사 과정

이 유적은 청주시(전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시남부락 산 75-1번지 두루봉에 위치하고 있다. “두루몽실하게 생겼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두루봉은 이미 1964년부터 한홍문의광산이 광권을 얻어 석회암 채취행위로 두루봉의 2/3 이상 유적이 파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동굴이다.

이 유적을 처음 찾은 사람은 바로 강승원 선생(당시 한국일보 청주 주재 기자)이다. 강선생은 백제시대부터 신라·백제인들 간에 물물교류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대청댐으로 수몰되는 문의 장날에 주목하여 여러 차례 장날을 답사하던 가운데, 1976년 6월의 어느 장날, 두 촌노들이 하는 ‘동굴에서 사슴뿔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소문한 끝에 두루봉 현장을 어렵사리 찾고 보존시킨 뒤에 이 사실을 충북대학 박물관장(당시 조성진 관장, 후에 총장)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 소식을 받은 조성진 관장은 당시 충북대학에 출강하고 있던 필자에게 유적답사를 의뢰하여 유적을 찾은 것은 1976년 7월 26일이다. 바로 이어서 필자는 근무하던 연세대학교 박물관(관장 손보기 교수)과 공동 발굴로 착수할 계획을 추진하여 1차 발굴에 들어가게 되었다(8월 7일). 공동 발굴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발굴 팀 모두는 발굴책임자를 필자로 하여 연세대학교 박물관 연구원들로 조직된 7명의 대원들이었다.

이러한 동굴조사(2굴)¹⁾가 진행되면서, 많은 짐승 뼈와 함께 여러 가

지 고고학 자료를 찾았으며, 이 사실이 8월 11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머릿기사로 보도(특종)되면서부터 발굴조사가 형클어지고 다시 2차 보도가 된 8월 13일 불가피하게 1차 발굴을 끝맺게 되었다.

그 뒤 11월 달 충북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된 필자는 그 다음 해부터 2, 3차의 두 차례 발굴을 충북대학교 단독으로 2굴 발굴조사를 끝내었다(사진 1, 2).²⁾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시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이 발굴에 참여하였던 당시 학생인 김성명님(현 국립제주박물관장)이 두루봉의 산 정상 가까이에서 찾은 것이 15굴 집터이었다. 이 유적의 발굴은 4·5차(1979년~'80년)에 실시하여, 많은 돌연모와 집자리·돌레담돌·화덕·숯 등을 발굴하여서 당시인들의 생활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성과를 올렸다(사진 4).

이 발굴 과정에서 한흥문의 광산의 화약 담당 인부인 박연달님이 우리 발굴현장을 찾아 와 “요사이도 뼈를 사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대원들이 노력하여 출토지점을 확인하여 찾은 것이 새굴이었다.³⁾ 새로이 찾은 굴이라고 하여 '새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굴의 조사는 정말 어려우며 위태로운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발굴은 굴착기로 두루봉 정상에 구멍을 만들고 여기에 쇠지렛대를 꽂아 놓고서 로프를 타고 90° 정도의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서 발굴해야만 하였다. 특히 이 발굴에 박태성·우종윤·김종환·길정택

-
- 1) 두루봉에서 한 1~3차 조사로 23개의 가지굴 흔적을 찾게 되었지만, 모두 굴의 끝부분이고, 9굴(연세대)과 15굴 집터(충북대)만이 조사가 뒤따라 계속된 뒤 부터는 흔적을 피하기 위하여 굴 이름을 고유명사로 부르기로 하였다.
 - 2) 연세대학교 손보기교수는 새로이 찾은 9굴을 두 차례의 조사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3) 1·2차연도(1976~'77) 발굴현장에서 동네사람들이 상치나면 바른다고 특히 사슴뿔의 뼈를 집집마다 마루 밑에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뿔은 천원, 아래턱은 오십원 등을 지불하고 사게 되었다. 마치 중국의 주구점 출토 뼈를 초기 발굴자들이 사들였던 것처럼..., 실제로 박연달님이 갖고 온 2개의 한 쌍인 사슴뿔은 삼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사진 5).

님들이 몸을 로프에 매달고 절벽에 매달려서 발굴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발굴장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엄청난 뼈 유물들을 찾게 되었다(6·7차, 사진 6).

그 가운데 뼈이 잘린 사슴머리뼈 13개가 거의 1m² 안에 가지런히 있는 것도 찾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옛코끼리(*Elephas antiquitas*) 상아의 발견이다(사진 7). 처음에는 맘모스의 것인 줄 알았지만, 형태와 같이 공반되는 동물상으로 보아 코끼리로 판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의 고동물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 거친 발굴에 ‘아니, 발굴에 목숨을 걸고 하다니’, ‘제자들에게 못된 일을 시키다니’라는 자책감에 무척 마음이 아팠고, 그 제자들을 불면목이 없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였지만, 이런 인사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시 현장 소장인 김홍수 전무로부터 ‘뼈가 나온다’는 전갈을 받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 현장을 가서 보았다. 여기 현장은 앞서의 곳과는 약 50m 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짐작되는 가파르고 험한 곳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뼈가 박혀 있다’라고 하는 말에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학생들과 의논하여 8차와 9차 발굴을 진행하였다(1980. 8. 8~21, 1981. 9. 30~10. 5).

이 발굴(‘처녀굴’)에서는 앞서의 새굴 조사처럼 필자가 뒤에서만 있지 않고 직접 발굴하기로 하였다. 학생들만 위험한 발굴장에 뛰어들게 하여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던 것에 못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직접 발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부딪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그 발굴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였다(사진 9).

이렇게 해서 찾은 것이 큰 쌍코뿔이와 동굴곰을 찾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발굴이 끝난 뒤에 ‘이제는 두루봉에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지쳤고, 힘든 과정을 보내어서, 학생들과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1982년 12월 5일 밤 9시 쯤, 현장 소장 김홍수 전무로부터

두루봉에서 “사람이빨 같은 것이 나오니 한번 와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람 이빨이면 사람이지, 무슨 소리요”라고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광산의 트럭을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박희현 교수와 타고 현장을 방문하였다(사진 13).

현장을 보니 두께 1cm, 너비 30cm 정도로 뼈화석이 편평하게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사람 뼈로 직감할 수 있었다. 역사에 남을 이야기이기에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작업 인부로 있던 김태완님은 힘이 세어 무거운 돌을 트럭에 올려 놓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는 트럭이 떠난 다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기에 현장을 둘러보는 남다른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까? 그러한 그의 눈에 포크레인으로 만들어 낸 단면 밑에서 조그마한 이빨을 하나 찾아서 그것이 ‘사람 이빨’이라고, 그것도 ‘어린이 이빨’이라고 바로 직감하였다고 한다.

당시 많은 집안에서 그러하였지만, 어린이들 이빨을 집에서 빼어서 지붕으로 던지는 관습이 있었을 때였기에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빨을 찾은 김태완님은 현장 소장을 향하여 오른손가락으로 쥐고 “소장님! 여기 돼지 한 마리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이 이빨을 본 현장 소장은 약 2주일 정도의 고민 끝에 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12월 5일). 만일 이때 김소장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하고 이 사실을 그냥 묵살해 버렸다면 오늘날의 ‘홍수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하여도 아찔한 일이다.

현장 발굴문제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이수봉 교수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여 두루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는 흔쾌히 박물관 예산을 모두 털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만든 발굴비 200만원으로 12월 17일부터 2주간의 발굴을 진행하기로 하고 착수하였다. 여기에 발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모든 발굴과정을 현장의 영상 촬영으로 이태련 선생에게 발굴비의 반을 먼저 지불하였다. 이렇게 하고 보니 남은 100만원으론 겨울 발굴에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들과 박희현 교수가 석장리 1차 조사인 ‘64

년부터 발굴을 같이 해 온 김희환·전은성·김종근 선생 등이 함께 발굴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단면에서 처음 본 사람 뼈를 찾고 보니, 목 위의 얼굴 뼈대가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날라 가버린 상태였다. 발굴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여도, 머리뼈가 없는 사람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고인류학상 머리뼈는 사람 뼈 부위 가운데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찾고자 내다버린 흙더미가 있는 곳을 살펴보니, 높이가 5m 정도나 뒹직하였다.

며칠 간 흙더미를 살펴보면서 발굴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지금 발굴장에서는 많은 석기가 출토되어 있고, 동굴입구도 찾아졌는데, 이것을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끝맺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하여도 흙더미를 놓아두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일생의 후회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모든 대원들의 발굴을 중지하고 흙 체질 팀을 4개 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던 약 열흘간의 기간은, 필자에게는 너무나 힘들며 고된 갈등의 시간들이었다.

약 1주일이 지난 시간에 드디어 뼈 조각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여야 할까? 며칠 간의 작업으로 100여개의 조각을 찾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이 조각들을 당시 4학년 구금회님(현재 보은여고 교사)이 혼자 천막에서 어려운 작업 끝에 거의 완성된 모습의 머리뼈를 복원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연구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한 작업을 강의시간마다 자랑하곤 한다. 이렇게 복원된 머리뼈를 발굴장의 몸체와 놓고 촬영 할 수 있어서 드디어 완전한 어린아이의 뼈대로 되었다(사진 14·15).

이 자료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뼈대를 찾은 큰 쾌거를 올렸기에, 이를 제보하여 준 김홍수 전무이름을 따서 ‘홍수 아이’라고 부르고, 이 굴을 ‘홍수 굴’로 하기로 하였다.

그 뒤 고인류학 전공자인 박선주 교수가 1986년에 충북대에 와서 작업하여 얼굴을 복원할 수 있었고, 다시 그 작업은 1997년 2월에 김수현 교수 등과의 공동 작업으로 완전한 홍수 아이 전신상과 흉상을

청동으로 복원하였으며(사진 16·17), 이 전신상은 2004년 일본 명치 대학 개교 123주년 기념 박물관 이전 개관 기념 특별전(4.1 ~ 5.31)에 전시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사진 18).

이로 부터 홍수 아이는 여러 나라의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널리 알리며 우리 구석기연구의 실상을 보여주는 큰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2주를 발굴한다고 한 것이 해를 넘겨 1월 29일까지 조사로 10차의 발굴을 마쳤으며, 또한 두루봉의 정식 학술조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뒤로는 뼈가 출토된다는 제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루봉 현장이 한홍문의광산에서 다른 사업자에게로 넘겨져, 우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게 되어 두루봉 조사도 계속되지 못하였다.

2. 연구의 전개

1) 두루봉 2굴

1976~'78년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이 3차(1차는 연세대와 공동발굴)에 걸쳐 발굴한 2굴은 평면굴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굴 입구와 천장 부분은 이미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으며, 굴 입구는 남향이었다(사진 1).

36층으로 구분된 층위(두께 4m)에서 문화층은 석회마루로 덮여 있던 찰흙 퇴적층(7층)으로 석기와 많은 동물 화석·뼈 연모가 나왔고, 불을 피운 화덕자리도 찾아졌다(사진 2).

석기는 16점이며 주로 석영이었고 동물화석은 현재 멸종된 찢소·쌍코뿔이·하이에나·큰원숭이 등 11종을 비롯하여 3문 7강 15목 28과 37속 46종의 동물화석이 찾아져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석기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종이 밝혀진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굴된 동물화석 가운데에는 사슴과의 뼈 화석이 가장 많이 출토되어, 사슴이 두루봉 사람들의 주된 사냥 대상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

4) 동물 분류의 연구에 박희현 교수가 수고하였기에 감사드립니다.

여 주고 있다. 확인된 55개체의 사슴 이빨을 F. Miller 교수의 분석에 따라 사냥 계절을 분석한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표1> 두루봉 2굴에서 출토된 사냥된 사슴의 달별 회수

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리 수	3	5	4	.	.	1	2	9	14	11	2	4

위 표를 통해 살펴보면 사슴이 가장 많이 잡힌 달은 9·10월이어서, 이때에 사냥 횟수나 집단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보다 수적으로 적은 8월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이때에도 사냥 활동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2월~3월까지, 즉 겨울동안에 잡힌 사슴들이 4·3·5·4마리 수를 보이고 있어서, 한 두 해의 겨울은 2굴에서 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9·10월에는 사냥회수와 잡힌 마리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11월에는 사람이 살지 아니한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4·5·6월에도 사슴이 잡히지 아니한 것은 이때에 2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거나, 갓 태어난 사슴과 어미 사슴을 일부러 사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2굴에서 출토된 사슴이빨을 분석하여 보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2차례(11월과 4~6월)정도 이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되면 불란서 테라 아마타(Terra Amata) 유적과 같이 계절적으로 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냥하기에 좋은 9·10월에 3~4개월 되는 어린 사슴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이 두루봉 2굴에 살면서 사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어린 사슴이 있다는 동기는 이 2굴에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살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꽃가루 분석으로 굴 입구의 모서리 부분에서만 157개의 진달래(Ericaceae) 꽃가루가 한꺼번에 검출되어 사람이 일부러 꽃을 꺾어서

갔다 놓은 미의식의 표현 행위로 해석되어⁵⁾ 그들을 3월 하순쯤 ‘꽃을 사랑한 첫 사람들(The First Flower People)’로 불러도 될 것이다(이용조, 1984).⁶⁾

이 동굴(2굴)은 필자의 박사논문 주제이기도 하였고, 여기에서 생활한 복원도(『과학동아』에서 제작)는 중학교 교과서 1쪽에 소개되기도 하였다(사진 3).

2) 두루봉 15굴

두루봉 산봉우리 8부 능선쯤의 동쪽 편에 있고 1978~79년 2차(4·5차)에 걸쳐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이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커다란 석회암 바위 4개를 이용하여 사람이 일부러 길이 40cm쯤 되는 길쭉한 형태의 석회석들을 한 줄로 세워 놓아서 담돌로 만든 집터가 찾아졌다. 집터 중앙부에는 땀뚱이 출토되는 30×30cm 크기의 불 땀 자리가 있고,⁷⁾ 그 주변에서 석영으로 만든 굵개와 자르개 등의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불을 이용한 조리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을 만든 형태는 프랑스의 테라 아마타(Terra Amata) 유적처럼 오리나무와 같은 잘 휘어지는 나무를 이용하여 칙닝쿨로 엮어서 지붕을 씌웠던 것으로 여겨지며(Henry de Lumley, 1969), 발굴된 집터의 면적은 약 9.6m²쯤으로 3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해석된다(이용조·우종윤, 2006, 사진 4).

3) 두루봉 새굴

5) 꽃가루 검사를 맡아 하여준 강상준 교수(충북대)에게 사의를 드린다.

6) 이락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네안델탈인의 옆에서 확인된 꽃가루를 갖고 R. Solecki가 붙인 책제목이다(1971. *Shanidar : The First Flower People*, Alfred A. Knopf : N. Y.).

7) 상당히 화력이 강한 숯불을 다음에 쓰기 위하여 물·흙으로 화력을 정지시켜 놓은 뒤 다시 숯불을 만드는 숯을 말하는데, 15굴에서는 적어도 3차례 이상 흙을 덮은 상태였음이 발굴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해석의 아이디어를 준 민두식교수(충북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한다.

두루봉 정상부의 비교적 높고 가파른 절벽에서 찾은 굴로 새로 찾은 굴이라는 의미에서 ‘새굴’이라고 하였다. 이 굴은 석회암 채취를 위한 발파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1979년 2차(6·7차)에 걸쳐 발굴하였는데, 절벽 위에서 동아줄로 몸을 의지한 상태로 조사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깊은 감회를 갖게 한다(사진 6).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진 발굴 결과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옛 코끼리(*Elephas antiquitas*) 상아(길이 61.8cm, 지름 7.6cm)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옛 코끼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다(사진 7). 이 상아의 뿌리 쪽에 남아 있는 넓게 떼어낸 자국은 뼈 격지를 얻기 위한 제작 행위의 결과이며, 가운데 부분에는 4줄의 자른 자국이 관찰되어 상아를 떼어내고 손질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8).

또한 약 1m²범위의 굴의 구석 부분에서 사슴 머리뼈 13점이 집중 출토되었는데, 이 중 2점의 머리 뼈에서 도살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45점의 큰꽃사슴 뼈에서 자른 자국이 확인되어 새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슴을 사냥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굴·9굴의 동물상과 비교하여 볼 때 새굴의 연대는 중기 홍적세로 가늠된다(이용조·하문식·조태섭, 1999).

4) 두루봉 처녀굴

새굴 아래쪽에서 석회석 발파작업 과정에 찾아진 굴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굴이라고 하여 ‘처녀굴’로 이름 지었다. 이 굴에서는 1980~’81년 8·9차 발굴로 거의 완전한 개체의 동굴곰(*Ursus spelaeus*, 사진 10·11)·쌍코뿔이(사진 12)·꽃사슴·크로쿠타 크로쿠타(*Crocota crocuta*) 아래턱 등 1,237점의 동물 화석과 석기 1점을 발굴하였다.

처녀굴 사람들의 주된 사냥물이 사슴이었던 것은 동물의 도살·해체와 관련된 자른 자국(cut marks)이 30점의 동물 뼈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중 꽃사슴 뼈에서 25점이 관찰된 점은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이용조·우종윤·하문식·조태섭, 1999).

이 처녀굴 곰의 종 분류에서 ‘불곰’(*Ursus actos*)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비율다이아그램으로 분석한 89개의 계측 항목에서 동굴 곰이 최고의 범주비율(80.8%)로 나타나고, 데닝제라이곰(74.1%), 불곰(52.8%)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그렇고, 현생의 불곰의 윗 머리뼈의 돌기가 「/」모양인 것은 동굴곰·데닝제라이 곰·치너굴 곰의 「人」자 형식과 다르다는 판단이 선다(Yung-jo Lee and Su-hwan Lee, 2008).

최근 불란서의 유명한 고동물학자 Dr. Anne-Marie MOIGNE는 ‘신종’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5) 두루봉 홍수굴

이 굴은 1982년 12월 5일 한홍문의광산의 김홍수 전무가 “사람 이빨 같은 것이 있다”는 제보로 찾게 되었으며(사진 12), 여기에서 사람 뼈를 찾음으로써 그간 10차에 걸친 두루봉유적 발굴에서 최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굴은 처음 제보한 김홍수 전무의 이름에서 ‘홍수굴’이라고 하고(1982. 12. 17 ~ ‘83. 1. 29)두루봉 유적의 10차⁸⁾발굴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견 당시 홍수굴의 외형은 많이 파괴된 상태이었고, 굴 입구 일부와 입구 안쪽의 동굴 벽 일부 그리고 부분적인 퇴적층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 뼈와 석기·동물화석 및 식물자료가 찾아져 가장 이상적인 구석기유적의 문화 성격을 지닌 동굴로 밝혀졌다.

홍수굴의 층위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입구 쪽을 기준으로 할 때 12층으로 구분되며, III층은 3개 층으로 세분된다. III층에서 2개체의 어린이 뼈가 출토되었는데,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홍수아이 1호 사람’은 의도적으로 매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사진 13·14). 또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 결과 5살 정도로 머리 크기는 1,260cc쯤이고, 키는

8) 앞에 서술한 새굴·치너굴과 함께 이 홍수굴을 발굴하도록 예산을 만들어 준 이수봉 박물관장(당시)과 발굴에 참여한 역사교육과 학생들께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110~120cm로 계측되었다. 머리뼈는 좁고 길며(Dolichocrany), 높은 머리(Hypsicrany)로 특히 윗머리뼈의 굽은 길이는 매우 긴 가운데형 얼굴이다(이용조·박선주, 1991 : 박선주·이용조, 1996).

홍수아이는 머리뼈의 해부학적 특징과 젖 값으로 볼 때 약 4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대 사람과 슬기 슬기사람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어 한민족의 기원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가운데 1호 사람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용조·박선주·김수현·이기수·조용진, 1997)들이 참여하여 복원하였다(사진 17).

동물 화석은 비교적 빈약한 편이지만 석기는 많이 출토되었다. 굴 입구쪽에서 석기 제작소와 굴 입구 안쪽에서 화덕자리가 찾아졌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석영·규암·편암·사암·반암 등으로 거의 대부분 외래 암질로 만든 석기가 집중 출토되었다. 석기 구성상 III층과 IV·VI층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III층에서는 굵개·밀개·툽니날 등 작고 가벼운 석기가 많은 반면, IV과 VI층에서는 찌개·주먹도끼·찌르개·주먹대패·사냥돌 등 크고 무거운 석기가 중심을 이룬다(이용조·우종윤·하문식, 1996).

연구 결과를 요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수아이 발굴 당시 한국 구석기 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손보기 박사와 함께 박희현 교수가 직접 발굴하였고, 당시 고고학 발굴 전문가 모두가 홍수아이가 출토된 III층이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교란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둘째, 홍수아이가 출토된 지층(III층)은 sand layer가 아니고, silt layer로 여러 지점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꽃가루 분석 결과로 보면 III층의 홍수아이 주변에서 집중 검출되어 (924개) 다른 층위(10~30개)보다 월등히 많아서 옛사람이 살았으며, 꽃가루는 사람 뼈가 출토된 III층에서 국화꽃가루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는데, 주로 사람의 팔과 몸통 부분에서 집중 검출되어 매장과 관련된 의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도적인 행위(장례 습속)가 있었던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홍수아이가 출토된 III층의 pH 지

수는 7.80으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오래 된 사람 뼈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홍수아이가 출토된 III층에서 톱니날·굽개·밑개·격지 등 1,590점의 뎀석기가 출토되었고, 이 층에서 12종의 동물 화석도 출토에서 석회암 동굴에 대한 불신을 부식시켰다.

넷째, 홍수아이는 발굴 후 뼈대의 경화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PVA(Polyvinyl Acetate)를 뼈 속 조직까지 침투시켜 완전히 말린 후 Dupon사의 glue를 아세톤에 녹여 뼈에 다시 침투시켰다. 이 작업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PVA는 더운 물에는 녹으나 아세톤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뼈 조직 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박선주). 따라서 룬리 교수팀이 연대측정 시 처리하였다고 제시한 Paraloid B72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홍수아이 경화를 위해 사용한 PVA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연대가 짧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홍수아이의 연대측정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이미 측정된 바 있다. PVA 및 접착제를 처리하지 않은 뼈 조각을 이용하여 미국 Univ. of Calif. Riverside Campus(UCR) Taylor Lab.(USA)에서 측정하였으나 연대 값을 얻지 못하였고(1987), 서울대학교 연대측정실(책임자 김종찬 교수)에서도 연대 값을 얻지 못하였다(2007). 또한 독일의 Max Plank 연구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책임자 S. Pääbo), 홍수아이를 PVA 및 접착제로 처리한 뼈 조각으로 측정하여 얻은 연대 값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처럼 홍수굴은 많은 석기와 이들을 사용하여 사냥한 짐승 뼈와 이들을 만든 옛사람까지 같이 발굴된 이상적인 구석기 시대의 동굴유적이다. 이러한 발굴 자료들이 평가되어 우리나라 광복 60주년 기념 KBS-HD의 60회 가운데 첫 작품(1회, 2004. 5. 8)으로 ‘한반도의 첫 사람들’의 주제로 방영되었으며, 현재 중·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국사』 책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 발굴여

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Ⅲ. 청주 소로리유적

1. 조사 과정

소로리유적은 청주시 (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156-19(논) 일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차령산맥 줄기가, 남쪽으로 900m쯤 떨어져서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이 흐르고 있는 들판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

이 유적은 오창 과학산업단지⁹⁾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조사단장 이석린교수, 1994. 3. 12~6. 26)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선사·역사시대 유적은 모두 46곳이며, 이 가운데 구석기시대의 뿔석기가 찾아진 곳은 옥산 소로리유적을 포함하여 옥산 남촌리유적, 오창 각리·까치말유적, 오창 구룡리유적 등 4곳이다.

이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구석기 유물이 수습된 4곳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단장 이용조, 1996. 12. 26~1997. 1. 27). 시굴조사 결과 남촌리유적, 각리·까치말유적, 구룡리유적 등 3곳은 이미 지형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져 고토양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24개의 시굴 구덩을 설정하여 조사한 옥산 소로리유적에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토탄층이 발달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 성격 규명을 위하여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로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주관으로 실시

9) 지표조사 때에는 ‘청주 과학산업단지’라고 하였으나, 시굴조사부터 ‘오창 산업단지’로 바뀌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생각하여 보면 ‘청주’라고 하였으면 싶다.

하였는데(조사단장 이용조, 1997. 11. 18~1998. 4. 15, 6개월), 구석기 유적으로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토탄층 조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석기 및 제4기 지질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에는 충북대학교(A지구, 구석기·토탄층), 단국대학교(B지구, 구석기),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C지구, 구석기), 한국자원연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 지질 및 유적형성)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사진 19).

이 조사에서 B·C지구는 모두 석기 출토층 만을 확인하였으나, A지구는 석기 출토층과 토탄층을 확인하여, 여기에서 법씨를 찾으면서 2차 발굴이 계속된다.

2차 발굴조사(2001. 9~10, 사진 20)는 충북대 박물관(관장 신호철)이 소로리 A지구 토탄 II구역만을 조사하였으며, 3차 시추조사(2012. 6~7)는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원장 우종윤)이 소로리법씨 보존지역의 주변을 조사하였다. 토탄층의 주된 발굴지역은 구석기문화층 발굴지역인 A지구에서 동쪽으로 60~70m 떨어진 곳으로, 조사 당시 지표면은 논으로서 해발 높이는 A·B·C 지구에 비해 약 4.7m 쯤 낮은 34.2m였다.

토탄층의 조사는 편의상 2개 구역(I구역·II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I구역(20×20m)에서는 법씨를 찾지 못하고, II구역 조사 결과 상부·중부·하부 3매의 토탄층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토탄층에서 채취한 토탄시료를 쪼개기 방법으로 확인하여 법씨와 곤충화석 및 각종 식물상자료 등을 찾았다.

2. 석기 문화층 연구

발굴 결과 B지구(단국대)에서는 유물이 성글게 출토되었으나, 1문화층에서는 굽개·흙날·격지·몸돌·찍개·망치돌 등이, 2문화층에서는 찍개가 출토되었다.

C지구(서울시립대)는 1·2·3문화층이 모두 확인된 유일한 지구인

데, 1문화층에서는 모룻돌·망치돌·몸돌·격지 여러 점의 부스러기가 한 곳에 집중 출토되어 모루 망치떼기로 쓰인 석기 제작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문화층에서는 굽개·밀개·망치돌 등이 출토되어, 중기 구석기 시대의 문화상을 층위 자료와 함께 단편적이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로리유적에서 사용된 석기의 돌감들은 유적에서 반경 1km쯤 거리에 위치한 미호천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돌감 획득은 주로 유적 주변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돌감은 한 면 또는 두 면이 판관한 모양을 지닌 자갈돌을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기는 거의 대부분이 1문화층에서 출토되었고, 2·3문화층의 석기의 양은 많지 않다. 전체 석기 구성상으로 볼 때 격지떼기에서 비롯된 몸돌과 격지 그리고 돌조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손질 된 석기가 드물고 석기 종류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자갈돌 석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A지구에서는 완성된 석기는 매우 드문 편으로 두터운 자갈돌의 한 가장자리를 가파르게 떼어 둥근 모양의 대패날을 만든 것과, 격지나 돌조각 또는 몸돌에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굽개·툽니날·홈날·부리날·밀개·뚜르개 등이 있다.

또한 모룻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몸돌·격지·망치돌·부스러기가 집중 출토되고 있는 석기 제작터가 찾아졌는데, 여기에서 잔손질된 연모와 함께 서로 짝이 맞는 부합유물이 나와 석기 제작과정을 복원하여 볼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었다.

가장 많은 격지는 크기가 다양하고, 자연면이 남아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격지 출토 양에 비하여 잔손질된 격지 석기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석기는 유사 줌돌날 몸돌(pseudo micro-core) 1점과 구심식 잔손질로 만든 밀개 1점이 출토되어, 후기 구석기문화의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적의 연대는 지층과 출토 석기의 특징으로 1문화층은 후기 구석

기시대 늦은 시기로, 2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로 1문화층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로, 3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로 편년할 수 있겠다(이용조·우종윤 편, 2000).

3. 출토 범씨와 토탄층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이 1·2차 발굴한 소로리유적 A지구 토탄 II구역은 상부(두께 0.2m), 중부(1.7m), 하부(1m)로 된 3개의 토탄층이 층서적으로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 층위에 대한 연대측정은 고토양층(8,800bp, 연대측정자료 1개) 밑에 상부 토탄층(9,500bp, 연대측정 자료 2개), 중부 토탄층(12,500~14,800bp, 16개), 하부 토탄층(16,300~17,300bp, 5개)에서 시료 24개를 미국 Geochron Lab.(GX), 서울대학교 AMS 연구실(SNU), 그리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방사성탄소 연구소(AA, 사진 30)에서 고대벼·유사벼 자체와 토탄을 시료로 하여 교차 측정된 결과 동일한 절대 연대 값을 얻어 토탄 퇴적 층위가 매우 안정적으로 범씨들이 원위치(in situ)에 퇴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용조, 2009 : 2011 : K. J. KIM, Y. J. LEE *et al.*, 2013).

이들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표 2).

소로리유적 A지구 토탄 II구역에서 출토된 범씨는 1·2차 발굴조사와 후에 연구실에서 토탄 분석으로 확인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127톨이 검출되었다. 허문희 교수(서울대)는 크게 고대벼와 유사벼로 구분하고 세분하여 각기 2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고대벼(18톨)로는 *japonica*형(소로리 I-1형, 사진 21) 17톨, *indica*형(소로리 I-2형) 1톨이며, 유사벼 I형(소로리 II-1형)과, 유사벼 2형(소로리 II-2형) 109톨로 유사벼가 6배가 많은 우점종으로 밝혀졌다(Yung-jo LEE, 2010).

범씨는 대부분 중부 토탄층의 윗부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중간 부분에서 고대벼와 유사벼가 각 1톨씩 (13,920bp, calBC 15,118yr)¹⁰⁾이 검

10) 소로리 범씨는 그동안 13,920bp의 연대 값에 기초하여 ‘약 15,000년’으로 발표하여 왔으나, 이를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영국 캠브

출되고, 하부 토탄층에서는 유사벼 1톨만이 출토되었다.

<표2> 소로리 A지구 토탄 2구역의 층위와 연대 값

MSL(m) 층위 자르면	퇴적층위		연대 측정 값(bp)		
	분류	층번호	IIS A		서울대 AMS Lab. (SNU)
			Geochron Lab. (GX)	Univ. Arizona (AA)	
35	매립토층	1			
34	고토양층	2			
	▶ 범람기원 니사층	3			8,800
33	▶ 상부 토탄질 점토층	4	▶ 8,450-8,560		
	▶ 범람기원 니사층	5			
32	▶ 유사벼 고대벼 출토		▶ 12,780-13,270 13,010 ▶ 13,420-14,000	12,520 (고대벼) 12,552(토탄)	12,500(유사벼) 12,930-13,490 13,600
	▶ 유사벼 고대벼 출토		▶ 14,020-14,600 14,820		13,700-13,920
31	▶ 중부 토탄질 점토층	6			
30	▶ 구하상 사층	7			
29	▶ 유사벼 출토		▶ 16,250-17,320		17,320
	▶ 하부 토탄질 점토층	8	▶ 16,680-17,310 17,300		17,300
28	▶ 구하상 사층	9			
27	▶ 구하상 역층	10			
26					

출토된 벼씨 가운데 계측(허문회·이철원 교수 계측)된 자료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소로리 벼 I-1형의 평균은 길이 7.2mm, 너비 3.08mm,

리지대학교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결과 calBC15,118yr로 밝혀져 그 연대를 약 17,000년으로 수정한다.

장폭비는 2.36이고 I-2형은 9.5mm, 3.5mm, 장폭비는 2.71, II-1형은 7.7mm, 1.53mm, II-2형은 6.45mm, 1.7mm의 외형적 수치를 알 수 있게 되었다(이용조, 2004 ; 허문화·이용조·우중윤, 2004).

고대벼의 소지경 형태는 야생벼의 길쭉하고 뽕족한 것과는 다르게 찢림이 잘 되지 아니하며, 전자주사현미경(SEM) 촬영결과 외부의 힘에 의하여 잘라진 특징이 관찰되어, 재배벼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SEM으로 관찰한 결과 고대벼의 유봉돌기는 현대벼와 거의 같으며, 소수경이 떨어지지 않은 것 2개와 소수경이 붙었던 부호영의 이층 부위가 거친 것 1~2개 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소수경이 남아 있다는 것은 벼가 상당히 여물었을 때 당시 사람에 의해서 수확되었다고 해석된다. 만일 성숙되지 않은 벼라면, 벼 껍질(왕겨) 부위에 규산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몇 년 내에 분해되어 17,000년 동안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다(박태식, 2009).

소로리 A지구 토탄 II구역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로리 A지구 토탄 II구역은 3개의 토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상부(9,500bp), 중부(12,500~14,800bp), 하부(16,300~17,300bp) 토탄층의 24개 자료를 미국 Geochron Lab.(GX)와 서울대 AMS연구실(SNU),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방사성탄소연구소(AA)에서 고대벼·유사벼와 토탄을 교차 측정된 결과, 동일한 절대 연대 값을 얻어 토탄 퇴적 층위가 매우 안정적이며 원 위치에서 출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부 토탄층(해발 32.13~30.5m)의 상층(32.13m)에서 출토된 고대벼와 유사벼, 그리고 토탄을 직접 연대 측정한 결과, 고대벼(12,520bp,AA), 유사벼(12,500bp,SNU), 토탄(12,552bp,AA)의 연대가 일치하여 같은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부 토탄층의 가운데 해당하는 해발 31.4m 층에서 「소로리 I-1형(*japonica*)」이 출토되었는데, 연대가 13,920bp(SNU 01-291, calBC 15,118yr)로 밝혀져 적어도 17,000년 전 고대벼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1·2차 조사로 모두 127톨(고대벼 18톨, 유사벼 109톨)이 검출되었는데, 유사벼가 고대벼보다 6배나 많은 우점종(predominant species)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주된 먹거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유사벼만 하부 토탄층에서 검출되어, 유사벼가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인다.

넷째, DNA 분석결과 소로리 벼씨의 현재의 재배벼·야생벼와는 39.6%의 낮은 유전적 유사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서학수 교수). 또한 소로리 벼씨와 야생벼(W130)와는 57% 정도의 유사도를 보여 소로리 벼씨가 독립형 야생벼와 가까운 유전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조용구 교수).

다섯째, 소로리 벼씨의 크기와 너비를 분석하여 도표를 만들어 본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자포니카(JP)와 인디카(ID), 자바니카(JV)의 범주에 거의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벼가 우점종인 분포는 벼의 기원 및 진화와 전파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사실로 본다면, 소로리 벼씨에 대한 학명은 새로이 ‘*Oryza sativa coreaca*’로 부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Yung-jo LEE and Jong-yeon WOO, 2014).

여섯째, 벼씨 출토층과 가까운 구석기층에서 출토된 많은 석기 가운데 흙날연모가 특징을 이루는데, 이들 연모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일곱째, 소로리 벼씨보다 늦은 연대로 밝혀진 가와지벼씨 I형(5,020BP)은 훨씬 자포니카와 인디카의 범주에 가까워지고, 가와지벼씨 II형(3,000BP)에서는 거의가 자포니카종으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되어 한반도에서의 자포니카 종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반도의 벼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개할 수 있겠다(이용조·박태식·우중윤, 2013, 사진 22).

여덟째, 소로리 벼씨의 연대는 중국 호남성 옥섬암(玉蟾岩) 벼씨와 같이 최근 연구결과로 지금까지로는 가장 오래된 벼씨인 것으로 밝혀져(17,000BP), 벼의 기원·진화·전파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엄문명 교수(북경대)의 다중기원설로 연관되는 자

료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청원군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한 소로리별씨 국제 회의(2002. 12. 17~20, 이용조·우종윤, 2003, 사진 23)의 결과에 힘입어 세계적 방송사인 BBC뉴스와 인터넷뉴스(2003. 10. 21, 사진 24)에 순화벼(domesticated rice)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IV. 청주 만수리유적

1. 조사 과정

만수리 유적은 청주시(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쌍청리·연제리 일원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90년에 손보기 교수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1991~'94년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팀이 청원 궁평리 청동기유적 조사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답사를 통해 이 지역에 넓게 발달된 구석기시대의 고토양층과 석기출토지점을 확인하여 보고한 바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지표조사를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실시하여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17개의 유적을 확인하였고, 그 후 한국문화재보호재단(A지구)과 중앙문화재연구원(B지구)이 나누어서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사진 25).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서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모두 14지점으로 행정구역상 강외면 만수리와 연제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사진 26), 동일 사업지구 내에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유적 형성 및 지층구성 비교를 통한 성격규명과 일관된 유적명 부여 및 유적 이해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4개 기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중앙문화재연구원·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한국선사문화연구원, 사진 25)이 협의하여 대표 유적명을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이라 하였고, 각 지점별로 1지점·2지점·3지점... 으로 일련 번호를 붙여 학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표 3).

<표3>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 지점별 조사현황

지점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면적 (㎡)	비고 (발굴허가명칭)
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6.5~'07.2	4,941	원평 I - 가
2			2,385	원평 I - 나
3			717	원평 I - 2
4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6.5~'06.8	2,332	원평 I - 가 북쪽
5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5 ~ 10	6,135	원평 1 - 다
6				원평 I - 라
7				만수리유적
8				만수리I유적(구 만수초교 서쪽)
9				돌다리유적
1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1~'06.10	3,500	원평 II - 1
1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7.1~'07.6	2,869	원평 II - 4
12		2007.2~'07.4	3,120	원평 II - 3
13		2006.11~'07.1	1,495	초막골유적
14		2007.7~'07.10	2,282	원평 II - 1
모듬			29,776	

가장 늦게 참가한 우리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전체 14구역 중 7지점을 발굴하여 전체의 반을 맡아 조사하였다(사진 26~29).

그 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전체 조사팀이 발굴한 유물 가운데 대표적 유물을 선정하여 전시함과 동시에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2007. 10. 6, 사진 30, 31, 이용조, 2007).¹¹⁾

한·불수교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구석기 문화를 조사하면서 만수리유적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도록 소개하고, 출토유물을 표지사진으로 사용되었다(사진 32).¹²⁾ 또한 우리 연구원의

1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한국토지공사, 2007, 『제1회 선사문화 세미나 :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74쪽.

12)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부(당시)가 주관하여 한국과 불란서의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STAR Project)으로 한국을 대표하여서는 필자가, 불란서 대표로는 국립고인류연구소 소장인 Prof. Henry de LUMLEY로 하여 진행한 연구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상재되었고, 여기에 그 표지 사진으로 만수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가 소개되었다(사진 32). 2011. Les

개원 5주년 기념으로 특별전(한국선사문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특별전 「인류 지혜의 첫 꽃 돌에 피다」 2010. 5. 18~6. 20, 국립청주박물관, 사진 33)을 통하여 만수리유적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고, 또한 이들 연구 결과를 두 차례의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¹³⁾

4개 기관에서 발굴한 국가 귀속 유물은 모두 9,302점 가운데 한국 선사문화연구원이 7개 지점에서 8,116점(87.3%)을 발굴하여 거의 전체 유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표4> 지점 및 기관별 조사결과

지점	조사기관	5문화층	4문화층	3문화층	2문화층	1문화층	합계
1	한국선사문화연구원	31	166	1,240	308	1	1,746
2	"			2,557			2,557
3	"			68	181		249
4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22	16	295	20	46	399
5	중앙문화재연구원			143	267		410
6	"			11	6		17
7	"			176	28		204
8	"			58	83		141

industries du Paléolithique ancien de la Corée du Sud dans leur contexte stratigraphique et paléoécologique(CNRS : France) 631p. (Henry de LUMLEY, Yung-jo LEE, Young-chul PARK et Kidong BAE eds.).

- 13) · Yung-jo Lee, Sujin KONG and Dae-won SEO, 2007. "Paleolithic Cultural Characteristics on Mansu-ri Site(Loc.XI), Chungbuk, Korea" *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SUYANGGAE and Her Neighbours : "Prehistory Migrations in Eurasia and America"* (Krasnoyarsk, Russia) 11~16.

· Y. J. Lee, D. W. SEO, G. H. CHEON, 2008. "Investigation of the Mansu-ri Paleolithic Site,Cheongwon, Kore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Current Issues of Paleolithic Studies in Asia and Contiguous Regions* A.P. Derevianko and M.V. Shunkov eds.(Novosibirsk : Russia) 91~96.

9	"			15			15
10	한국문화재보 호재단						0
11	한국선사문화 연구원	147	83	37	12	5	284
12	"		970	1,892			2,862
13	"	1	57	2	1	17	78
14	"	178	17	65	80		340
합계		379	1,309	6,559	986	69	9,302

특히 기반암층의 도달과 절대 연대 측정을 위한 여러 방법이 시도 되어 교차 검증의 연구를 밝혀 줄 뿐 만 아니라, 다수 유물(4,552점)인 전체 유물의 50%나 되는 1·2·3지점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일본 동지사대 마츠후지 카츠토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대회(일본 교토 동지사대, 2012. 11, 23~27)가 열려, 만수리 유적의 중요성과 연대가 공인되었다(사진 34, 35).

2. 층위와 의미

만수리유적은 아주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고(사진 25) 1지점은 가장 두꺼우며(9m) 자갈층(단구)이 확인되어, 인접한 4지점과 연결되어 연대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14개 지층과 5개 문화층(1지점, 사진 36)의 연대를 알기 위하여 다양한 연대측정방법(AMS, OSL, Be10, MIS 등)과 화산재를 비교하여 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마츠후지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화산재(단하루 도루 박사 책임연구)와 고지자기(하야시다 아키라 교수 책임연구) 및 고토양 층서 기준(나루세 토시로우 교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5).

<표5> 만수리 1·4지점의 층위(지층·문화층)와 연대
(Ka = 1,000년)측정

1지점	분류	토양색	문화층	Loc. I		Loc. IV			4지점
				AMS	OSL	OSL	Be-10	MIS	

14	지표									지표
13	회색 점토층	10YR 5/1						2		
12	암황 갈색 점토층	10YR 4/6	5					4	AT(22)	3-a 3-b 3-c 3-d
11	황갈색 점토층	10YR 6/8				65.76			Aso-4 (85)	4-a
10	진갈색 점토층	7.5YR 5/8	4	31.31 .32.8		75.84		5a		4-b
9	적색 점토층	10R 4/8	3		50.51 88.92 104.1 15	94.108		5c~e (71~ 127)	K-Tz (90)	4-c
8	명적색 점토층	10R 6/6	2		52.53 .95			8		5-a 5-b 5-c
7	적색 점토층	2.5YR 5/6			44			10(33 4~36 4)		6-a
6	적색 점토층	2.5YR 5/6						11(36 4~42 7)		6-b
5	적색 점토층	10R 5/8						12(42 7~47 4)		6-c
4	연적색 점토층	2.5YR 6/2	1		103		261.4 07 481.5 58 714.7 14	14(52 8~56 8)		7-a 7-b 7-c
3	연적색 점토층	2.5YR 5/2						15		
2	모래층				44.49 .68					8 9
1	하상 퇴적층 (자갈층)							16		
기 반 암										

특히 단하루 도루 박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종류의 화산재를 확인하여 12지층에서 AT화산재 (25,000년 전), 11지층에서 Aso-4 화산재(85,000년 전), 9지층에서 K-Tz 화산재 (90,000년 전)를 찾아 우리의 OSL 연대측정과 비교·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지층을 다양한 연대 측정 방법과 화산재를 비교하여 보면, 4지점 3-a지층(1지점 12지층)에서 검출된 AT화산재(22,000년 전)자료는 1번째 토양 췌기층이어서 그 연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겠다. 그 아래의 4-a층(1지점의 11층)에서는 Aso-4화산재(85,000년 전)로 추정되는 화산재가 소량 검출되었는데, 퇴적층의 OSL 연대가 $65 \cdot 76\text{Ka}$ (7.6만년)로 밝혀져 상당히 근접한 연대측정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4지점의 4-c층(1지점 9지층)에서는 K-Tz화산재(90,000년 전)와 함께 $94\text{Ka} \cdot 108\text{Ka}$ (OSL)의 연대치를 얻어, 그 위층(4-a)보다 오래된 연대임을 보여주며, 이 층이 중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1지점의 9층(4지점 4-c층)에서는 모두 8개의 연대측정 자료가 얻어졌는데, 100Ka 내외가 6개나 되어 4지점의 자료와 함께 이들의 연대는 그 위층(10층)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자료인 것으로 해석되어 역시 중기 구석기시대의 보다 이른 시기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8층의 연대가 95Ka 로, 4층이 103Ka 로 나타나 해석상의 어려움을 갖게 되지만, 최근 프랑스 앙리드 룩리 교수팀은 Be-10 측정 방법으로 4층(1문화층)의 연대측정 자료를 6개나 발표하여($261 \cdot 407 \cdot 481 \cdot 558 \cdot 714 \cdot 714 \text{Ka}$) 주목된다.

연대 폭이 넓으며, Be-10의 연대측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위 퇴적층에서 출토된 K-Tz 화산재와 OSL 연대 값, 그리고 Be-10방법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261Ka (261,000년 전)의 연대 값만으로 보아도 1문화층은 전기 구석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e-10의 연대치 $261 \cdot 407\text{Ka}$ 를 제외하면 $481 \sim 558\text{Ka}$ 까지의 한 단계와 714Ka 의 두 개가 같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앞으로 프랑스에 보낸 1지점의 층위 시료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팀은 중간 연대인 48만~55만년 전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대는 松藤和人·成瀬敏朗 교수의 해양산소동위원소 연대편년(MIS)으로 14단계($528 \sim 568\text{Ka}$)로 보고 있어 두 연대 측정 방법 사이의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층의 연대는 한국(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한국선사문화연구소 팀), 일본(마츠후지 카즈토 교수팀), 프랑스(앙리 드 룰리 교수팀) 학자들의 국제간의 공동연구로 얻은 과학적 연대이며, 그 시대가 바로 북경원인과 같은 ‘곧선 사람(*Homo erectus*)’의 시대이어서 이들의 한 부류가 이 땅에 살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중원 문화의 상한 폭을 50만년 이전까지로 과학적 연구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이용조, 2012, 사진 37).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만수리유적은 우리나라의 중부내륙지역을 흐르는 금강의 한 지류인 미호천변에 발달된 아주 넓은 한대유적이다. 이 유적은 이미 발굴된 소로리·봉명동·장관리·송두리 등 미호천을 중심으로 있었던 구석기유적들의 문화성격 연구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중기에 이르는 석기공작 연구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로써 유적의 기반암 층위에 안정된 퇴적층위 확인과 함께, 각 층위(5개 문화층)에서 출토된 많은 석기들의 문화성격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구석기 석기제작과 그 발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갈돌 석기문화 발달과정을 밝혀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구석기유적으로는 최초로 3종류의 화산재(AT·Aso-4·K-Tz)가 확인되어 연대 결정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층위의 확인과 함께 중기 구석기 문화층의 연대를 보다 확실하게 하였다.

셋째, 고고학과 지질학의 학제 간 공동 연구를 위하여 복수의 연구 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팀·프랑스 유럽선사문화연구소팀·목포대학교팀·일본팀 등)이 참여하여 자연과학적 조사와 함께 다양한 연대측정방법(AMS·OSL·Be10 등)이 응용되어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특히 제1문화층이 Be-10과 해양산소동위원소 연대편년(MIS) 연대의 2가지 방법을 통해 약 50만 년 전으로 같은 과학적 연대치를 얻게 되어 ‘곧선 사람’들의 문화가 바로 이 유적에서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앞으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이용조, 2012).

여기에 소개된 청원 만수리유적은 산업화에 밀려 조사되는 구제발굴로 찾아진 유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찾아진 많은 구제발굴유적 가운데 이 만수리유적은 아주 넓은 범위 내에서 모두 14개 지점이 발굴되었으며, 거기에서 찾아진 약 1만점에 가까운 유물들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발달된 전기와 중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필자에게는 이 유적의 존재를 말씀하여 주신 은사이신 손보기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다. 손 교수께서는 필자가 금강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굴유적과 한대유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만수리유적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셨다. 필자가 경부고속전철에 따른 청원 궁평리유적 조사(1991)를 기회로 틈틈이 짬을 내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지점의 석기 유물을 채집하게 된 것이 오늘의 만수리유적에 대한 첫 관심이었고, 이렇게 하여 찾아진 유물이 오늘의 연구에 대한 단초를 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일본학자들과 프랑스 학자들의 연구제공도 큰 힘을 보태주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과학적 연대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과학적 연대측정 분석방법은 고고학적 세계와 편년체계를 더욱 과학적 증명을 더하여 주었으며, 이로써 아시아구석기의 큰 틀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깊은 감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이 유적은 전체 조사단이 남겨 놓은 일부 지역이 보존 대상 지역으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해야 할 일은 무척 많다고 하겠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유물들을 전체로 모아 특별전을 개최하여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또한 관계 학자들은 지금까지 제출된 보고서에 멈추어 있지 말고 좀 더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구석기 테두리안의 위치와 역할을 밝혀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사진 35).

필자가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여 글로 발표함도 여기에 뜻이 있다

고 하겠다.

V. 청주 아득이 고인돌유적

1. 조사 과정

청주시(전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224번지 (북위 36° 25' 07", 동경 120° 30' 11")에 있는 아득(阿德)이 마을에 있는 이 고인돌은 박상일·이원근·유조열 님 등이 한 '대청댐 수몰지역 유적유물조사 사업'의 1차 조사로 75년 7월 6일 찾고(사진 38), 이를 자세히 1차 보고서에 소개하였다.

1차 보고서에도 이 유적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일부 유물들은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한 것으로 보면, 이 유적은 외부로 나타나 있는 고인돌의 특징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미 많은 굴이 있어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고인돌은 바로 옆에 나무나이 130년 정도 되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돌 청자'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이름으로 보면 고인돌 덮개돌 위에는 자연스레 만들어진 나무 그늘이 있었고, 이 그늘에 앉아 동네 사람들이 한가로움을 보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청댐 수몰지역의 일환으로 이 조사를 맡은 충북대학교 박물관(당시 관장 조성진 교수)팀은 옥천 안터 고인돌과 선돌을 조사한 뒤에 '77년 12. 14~20 (7일간), '78. 1. 8~9까지 9일간에 걸쳐서 조사하였다. 이 때 참가한 대원들은 충북대학에 처음으로 설립된 사학과 1학년 학생들(김성명·박결순·우종윤·임광훈)과 민덕식 조교 및 정재현 학생예원 등이 참여하여 공주 석장리에서 온 분들과 그럭저럭 발굴팀을 꾸릴 수 있었다.

아득이 고인돌을 조사할 때(사진 39) 들은 이 동네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가 목계 된 이장택은 집안이 넉넉한 편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옆집에 사는 같은 또래의 친구는 이장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일을 도왔다. 이렇듯 3~40년을 이웃에서 자란 이들은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대청댐으로 수몰되어 버린 생가를 저버리고 어려운 형편의 친구는 당시 새로 개발되는 안산 신도시로 땅 3,000평을 대토로 받아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림이 유복한 이장은 같이 가기 위하여 자산을 숨기면서까지 추첨에 참여하였지만, 결국 떨어져 헤어질 날을 안타까워 한 두 친구는 매일 술판을 벌리는 때에 발굴장에 도착하여 이들의 간절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이장은 자산을 정리하여 대전으로 떠났고, 가난했던 친구는 땅을 받고 안산으로 이사 간 것까지는 뒤에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친구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의 애환이 아닌가 한다.

아득이 고인돌 발굴에서는 바닥면에서 문헌 돌검과 돌촉을 찾아냈다. 그리고 고인돌 킴돌의 바로 중간 부분에서는 쇠뿔 손잡이 토기 조각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출토된 돌화살촉을 비롯 돌칼과 쇠뿔손잡이 토기 따위의 부장품으로 미루어 문헌 사람은 남성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확장한 발굴지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돌무덤을 새롭게 찾는 성과를 올렸다. 이 무덤을 처음 발굴할 때는 무덤인지조차 몰랐다. 주위를 확장해 나가는 동안에 얇은 판자돌(약 1.5m×1m)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돌을 걷어내고 다시 흙을 걷어내는 순서가 모두 6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닥에다 길이 30cm에 가까운 자갈돌을 7개를 놓았는데, 맨 윗돌은 다른 돌보다 약 10cm나 높아 베갯 돌(石枕)로 쓰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옆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조각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 돌무덤이 아닌가. 이 신석기 무덤은 다른 유적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여 주목된다.

아득이 고인돌 옆에 세운 선돌은 끝을 손질하여 유난히 뾰족하여(사진 40) 다른 선돌과 같이 남성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고

인들에 묻힌 사람과 선돌은 친연관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 고인돌 주위에서 거둔 25개체 이상의 토기 조각의 날카롭게 깨진 흔적은 일부러 깨뜨리는 일종의 제의(祭儀)에 뒤따른 의례행위로 판단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이 자료를 많이 이용하여 자랑스러운 유적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발굴장을 좀 더 확장하는 동안 고인돌 북서쪽으로 약 3m 떨어진 자리에서 판판한 판자돌(별자리 돌판, 32.5×23.5×4.1cm)을 찾았다. 이 돌이 우리나라 천문학사상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2. 연구와 전개(이용조, 1979)

1)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과 성별(남성)

고인돌이 분명 무덤으로 쓰인 유구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묻힌 사람(死者)이 있고, 그의 머리 방향(orientation of the head)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해석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발굴하면 묻힌 사람 뼈의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접근이 어렵고, 따라서 실제로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 문제를 다루어서 쓰는 예가 아주 드문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하여 출토된 유물과 여기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다면, 해석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왔다.

이미 도굴된 아득이 고인돌의 덮개돌은 원래 있던 상태라면 304~278×275×40~55cm의 것으로 큰 편에 속한다. 고인돌은 판돌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판암으로 덮개돌과 같은 암질인 것이 확실하며, 동쪽 고인돌이 250×135×40cm, 서쪽이 250×115×20cm이 되어 동쪽이 2배 두터운 것을 세웠다. 그리고 이 고인돌로 본 유구는 NW 65°로 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머리 방향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우선 물의 흐름과 같이 배열되어 있는 사실 위에 바로 받돌(支石)의 중간 옆 부분에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쇠뿔 손잡이(牛角形把手)가 출토된 위치는 실제로 유구 안에 받

굴대원이 누어보았을 때에도 역시 남자 성기부분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머리 방향은 물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남성의 연모인 화살촉과 간돌검 출토와 다음에 살펴볼 선돌의 성별과도 남성으로 보여 여기에 묻힌 사람은 남성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이 유구의 주인공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여 주게 되며,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별자리 돌판과 깊은 연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목된다.

2) 불 놓기 의식

돌레돌을 한 켠 벗기고 나니, ㄷ · ㄹ칸으로 줄을 맞춘 듯이 8m사이에 8개의 돌 밑에 그을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남쪽 마구리 돌의 밑돌에는 불 피운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은 일부러 불을 피우고 난 뒤에 돌로 불을 끄고 그 위에 마구리돌을 세운 것이 확실히 하여 유구를 마무리 하기 전 즉, 불피우는 어떤 의식(儀式)을 집행한 것으로 유추된다.

다른 고인돌에서 이러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통된 의식에 따른 불 놓기는 아닌 것으로 짐작되며,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과 관계 있는 죽음에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락바퀴 · 돌칼 · 돌끌 · 토기 손잡이 등의 부러뜨린 것과 연관되는 가능성도 있다.

3) 그릇 깨기 의식

고인돌 유구 밖에서 출토되는 민무늬(無文) 토기들은 깨진 면이 모두 날카롭고, 실제로 서로 접합되는 25개체를 확인하여 실제로 이들을 분석하여 보니 모두 식사용 그릇과 같은 작은 그릇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아마도 이것은 장례식에 참여하였던 회연자(會宴者)들을 위한 그릇이었으며, 또한 이 그릇들을 일부러 깨트리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자료는 앞으로의 다른 고인돌 유적에서도 보다 깊게 살펴보고

분석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별자리 돌판

석실 유구의 북동쪽 07칸에서 판암으로 된 돌에 크기로 보아 4종류의 굽 구멍을 판 유물이 출토되었는데(32.5×23.5×4.1cm, 사진 41),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큰	중간	작은	아주 작은
지름(mm)	7	5	3.5	2
숫자	2	14	39	5

위와 같이 크기별로 구분된 굽을 주의 깊게 보면, 인공으로 또 어떤 목적에 따라 파서 배치시킨 인상을 갖게 한다. 이 자료는 중요하기에 조사와 연구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78년 1월 하순 금강가의 겨울바람은 엄청 매서웠다. 참가한 대원들은 한 달이 넘는 겨울 발굴로 힘겨운 나날을 보낼 무렵인데, 앞에서 말한 사암 판자돌을 물로 세척하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날이 너무 추워 석유 난로로 겨우 데운 물로 태고의 때를 닦아내는 순간 평평한 돌판에 위와 아래가 맞닿리지 않은 파인 구멍이 나타났다. 이는 바로 “굽”이었다(사진 41).

확대경을 들고, 다시 굽에 매달렸다. 돌판에는 크고 작은 두 종류의 굽이 모두 65개나 되었다. 쪼으기와 갈기 등 두 가지 수법을 써서 표현했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나 왜 굽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우선 한국과학사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전상운 교수가 쓴 『한국과학사』에 고구려고분에 나타난 별자리는 모두 1,200개이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可視) 실제 모든 별자리인 것으로 해석한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별을 다 그려서 벽화에 남겼다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러던 참에 프랑스에 후기 구석기시대 뼈에 나타난 굽을 조사한

A. 마삭 교수의 관찰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들 굽은 2⅓ 개월의 달(月) 변화를 표시하였다는 연구였다. 그리고 영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스톤 헨지를 4계절의 해돋이와 해지기 관찰을 위한 축조물로 보는 A. 텀 교수의 해석도 만났다. 이들 자료를 빌려 천체 관측의 신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고나 할까.

앞서 조사한 안터 1호 선돌에 나타난 둥근 원은 이미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원의 개념을 터득한 증거와, 이 같은 사실과 연결하여 돌판에 새긴 굽을 별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내용을 보고서에 서술하였다(이용조, 1979).

이 보고서가 나간 뒤 여기에 주목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인 김일권 박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이어 이 돌판을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교육부의 예산지원으로 충북대학 박물관에서 『선사유적 발굴도록』을 1998년에 출판하여 유물을 컬러 사진으로 소개하였다. 당시 서울대 박창범 교수와 서울교육대학 이용복 교수가 필자의 공동연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결과를 2001년 『한국 과학사학회지』에 발표하였다(박창범·이용복·이용조, 2001).

어떻든 이 돌판의 별자리는 고인돌 시대인 기원전 5세기경 북반구의 가을 하늘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미 별자리를 터득할 만큼 상당한 천체 관찰 지식을 독특하게 갖추었다”는 해석과 함께 북한 지역 고인돌에도 같은 별자리가 나온다고 소개하였다.

이렇듯 우리(박창범·이용복·이용조)는 북두칠성·용자리·케페우스·작은곰자리·카시오페아와 같은 별자리를 확인하여 당시 사람들의 별자리 인식 수준을 일반에 널리 알렸다(사진 42).

이렇게 하여 「별들의 고향」(최인호의 소설 이름으로 유명하다)이란 이름을 따서 임병무국장도 그대로 사용하여 가호리 아득이 마을이 ‘별들의 고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발굴이 끝난 20년 만에 새로운 해석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학계에 소개하는 영광을 뒷받침한 이 별자리 돌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많은 고고학도들에게 구체발굴을 어떻게 마

무리할지를 상기시킨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별자리 돌판을 못 찾았다면, 선사시대의 천문학을 영영 잃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내 한 사람의 순간의 불찰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버려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마음이 무겁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고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5) 선돌과 그 의미

아득이 고인돌에서 89.5m 떨어져서 석실의 방향과 그 정면이 바로 일직선상에 있는 선돌의 1기(基)가 있다. 전체길이는 105cm되며, 고인돌을 향한 쪽이 정면임을 알 수 있다(사진 40).

동리에서는 ‘탑’이라 부르고, 이것이 서 있는 곳을 ‘탑 거리’라고 하고 있다. 이 선돌도 안터 1호 선돌과 같이 전체 면에 손질되어서 폭도 일정하며, 끝부분은 뾰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선돌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위하고 있었다.

이 선돌에서 가장 좋은 판판한 면을 골라 고인돌을 향하게 한 것은, 이 면이 선돌에서 중요한 얼굴을 상징하고 있어서, 고인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는 선돌 옆에 있는 돌의 굽과도 연결되며, 굽의 연계는 문화의 한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선돌은 그 중심을 측량하여 본 결과 고인돌의 기준높이(M.S.L. 45.52m)보다 12cm아래 되는 선(45.40m)이 중심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고인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높이는 아1고를 세울 적의 원래 있던 노랑(10YR 5/6) 모래층의 깊이(45.42m)와 같음이 나타났다. 이 사실은 고인돌바닥의 깊이와 이 선돌의 중앙부분의 선이 일치하여, 같이 세웠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고인돌과의 관계-연결은 더욱이 떨어져 있는 거리문제(89.5m)도 옥천 안터 1호 선돌에 있는 둥근 원의 90cm와 아주 근접한 수치로서 이것의 99.5배 즉 100배 되는 것과 연결된다.

고인돌을 세우는 자리는 눈에 잘 띠는 곳이어야 하며, 모래층에 선

정하여 썼다는 주장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나 관습은 선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둘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서로 보완하는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인돌을 중심으로 선돌을 세우는 경우, 당연히 거리와 방위 문제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이러한 생각에서 축조된 것이 확실한데, 그 거리의 기본단위는 현재의 90cm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구의 MY(megalithic yard) 2.72feet(약 83cm)와 비교되며, 앞으로의 많은 조사에서 분명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선돌도 택지(擇地)되어 세워졌을 것이며, 그 형상도 묻힌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돌무덤

고인돌의 유구를 확대하는 과정에 ㄴ9칸에서 타원형으로 둥그스름하게 돌이 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방향은 고인돌과 같데 북서와 북북서의 중간향(NW60°)으로 놓여 있으며, 처음 쌓인 22개돌의 윗 깊이는 기준 깊이 밑 134cm(M.SL 45.18m) 되는 노랑 모래층 속이었다.

그래서 돌레를 정리하면서 바로 윗돌 옆에서 깨진 면이 날카로운 굽은 빗살무늬토기조각(1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표력만한 크기의 석영 강자갈 돌을 돌레돌로 쌓았으며, 그리고 바닥에는 7개의 판돌과 자갈돌 그리고 고운 흙을 덮은 6차례의 반복을 하고 난 뒤, 강자갈돌을 넓직한 면이 위로 향하게 일정하게 깔아 놓은 것이 나타났다. 6개의 판판한 돌이 완전한 수평과 평형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이 돌은 파이고 높게 놓여 있어서 이 북쪽돌이 배곶돌(石枕)로 보는 해석을 내리게 하였다.

지금까지 발굴순서에 따른 고찰을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순서는 매장한 차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그와 같이 하였다).

순서	깊이 (cm)	층	유구크기 (cm)	특징
7	134	등근돌	181×91	화강암·편마암의 등근돌로 쌓음
6	143	모래염토	"	염토질이 다른 모래층보다 많음
5	147	판돌 ②	175×95	판돌로 쌓은 윗 층
4	158	왕 모래	"	얇게 깔았음
3	158	판돌 ①	"	2장의 판돌을 가운데에 깔았음
2	165	고운모래	172×100	가운데에는 모래로, 둘레에는 등근돌을 쌓았음
1	205	강자갈돌	170×85(밖)	가운데에 7개의 강돌을 차례로 편편히 깔았음

이 도표를 통하여 보면, 일부러 만든 유구가 분명하며, 까는 층(순서 1)과 여기에 같이 고운 모래를 덮어 둔 층(순서 2)이 있음을 알겠다. 이렇게 약 40cm 두께를 모래로 채운 뒤, 판돌(1)의 2개의 큰 돌로 뚜껑을 만들었고(순서 3), 그 위에 강모래를 덮었으며(순서 4), 다시 판돌(2)를 덮었다(순서 5).

이 유구를 보면, 맨 아래층(순서 1)의 안쪽 길이는 140×45cm로 굽혀 묻기의 매장방법이 쓰인 것 같다. 그리고 유구의 방향과 베갯 돌로 보아 머리 방향이 NW60°이며, 이것은 강으로 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1)의 판돌 7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후세에 내려오는 칠성판(七星板)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이용조, 1979).

VI. 청주지역 선사문화와 그 의미

앞에서 두루봉 동굴유적·소로리유적·만수리유적·아득이 고인돌 유적 등 4유적의 조사과정과 연구, 그리고 전개를 살펴 보았다.

그렇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으로 청주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고구하고자 한다.

1. 시대 : 전기-중기-후기구석기-신석기-청동기로 이어진 연계문화

만수리유적의 제1문화층은 1지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와 4지구(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아주 적은 석기 3점 밖에 출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층의 과학적 연대는 불란서 팀(책임 앙리 드 토퍼 교수)과 일본 동지사대 팀(책임 마츠후지 가즈토 교수)이 각기 Be-10 연대측정과 산소동위원소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한 결과, 50만년으로 측정되어 아주 신빙성이 있는 과학적 연대를 얻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

이 층의 연대는 북경사람의 시대와 같은 곧선사람이 만든 돌연모와 문화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청주지역에 그들이 살았던 족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석기와 문화층인 것으로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어서, 3문화층에서 발굴된 적어도 4,000점 이상의 석기들은 OSL 연대측정과 함께 K-Tz 화산재(90,000년 전)로도 10만년 이전의 석기로 밝혀져, 중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중기 구석기문화의 연구에 절대적인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청원 두루봉 처녀굴에서 찾아진 동굴곰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두 개체의 동굴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곰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DNA 검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종 분류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후기 구석기시대는 소로리 1·2·3지구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그 층과 연대를 같이 하는 소로리 1지구 토탄 2지역에서 출토된 하부토탄층의 유사벼와 중부 토탄층의 고대벼·유사벼(17,000년 전)는 세계벼의 기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득이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돌무덤은 축조 과정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굽혀묻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7개의 돌 가운데 다른 6개의 돌이 같은 높이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첫 번째 돌은 10cm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움푹 파여 일종의 돌 베개(石枕)로 쓰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득이 고인돌은 발굴된 자료들로 살펴보아 당시 사람들이 불 피우기와 그릇 깨뜨리기의 장례 습속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쇠뿔모양 토기 손잡이와 화살촉·간돌검 등이 부러져 있어서 묻힌 사람이 남성이며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 묻힌 남자는 바로 여기에서 찾은 별자리 돌판으로 보아, 샤만·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어튼 여기에서 발굴된 별자리 돌판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TV의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청주 지역의 선사문화는 전기→중기→후기 구석기→신석기→청동기로 연계되는 문화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들 자료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선사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선사유적의 다양성

청주지역에서는 동굴유적으로서의 두루봉, 한대유적으로서의 만수리와 소로리유적, 무덤유적인 홍수굴과 아득이 돌무덤과 고인돌 등, 다양한 자료들이 발굴로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돌연모를 통한 석기제작연구 뿐 만 아니라, 이 연모들을 사용한 사냥행위로 잡힌 고동물 자료들, 그리고 무덤에서 출토된 여러 장례습속 등의 자료는 우리나라 선사문화 연구와 해석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히 평가된다.

3. 먹거리의 자료들

두루봉동굴에서 발굴된 많은 짐승 뼈들은 당시 사람들의 필요한 먹거리로 충당되었음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이들 옛 짐승들을 통하여 당시의 생태환경과 함께 그들의 생활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은 우리 청원지역이 선사문화 연구에는 무척 행복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발굴되고 연구되어, 그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계에 발표하고, 연구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아시아 좀 더 나아가 세계선사학계에 큰 충격과 희망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 새굴에서 찾아진 옛 코끼리 상아에는 자른 자국(cut-mark)이 확인되어, 당시 사람들이 몰이사냥(big game hunting)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되어 당시 사회의 인적구성을 복원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적어도 이 코끼리를 잡는 데에는 남자 장정이 16명이 동원된다고 하는 R. LEE 교수(미국 하버드대)의 견해는 우리에게 구석기사회 복원에 큰 지침을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두루봉 2굴에서 출토된 뼈화석 가운데, 남생이(*Geoclemys reevesii*)의 뼈 1점은 두루봉 사람들이 적어도 문의면 문산리에서 오늘의 금강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서 물고기 사냥으로 먹거리를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한 점의 뼈 자료는 당시 사람들의 식량 섭취에 물짐승 50%, 물고기 10%, 식물채집 40% 등의 먹거리를 채취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연구 자료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구석기 연구에도 먹거리(food resources)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이용조, 1984).

여기에 소로리유적에서 출토된 소로리범씨를 허문회 교수는 크게 고대벼(I형)와 유사벼(II형)으로 분류하며, 다시 고대벼는 자포니카종(I-1형), 인디카형(I-2형)으로, 유사벼도 다시 II-1형과 II-2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3차 조사까지 모두 확인된 127톨 가운데, 유사벼가 109톨, 고대벼가 18톨(자포니카종 17톨, 인디카종 1톨)의 구성으로 보아, 유사벼가 월등히 많은 우점종(predominant species)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주요 먹거리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부 토탄층에서 유사벼 1톨만이 발견된 사실은, 아주 적은 면적의 발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유사벼가 먼저 한반도에 도착한 것은 아닌지, 또한 중부 토탄층에서 고대벼와 유사벼가 같이 출토된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뒤따라서 진행되어야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7,000년 전의 소로리 벼씨를 그 다음에 진화된 고양 가와지 벼씨(5,000년 전)와 연결하여 이 모두를 *Oryza sativa japonica*, *Oryza sativa indica* 와는 다른 '*Oryza sativa coreaca*'로 부르고자 한다.

VII. 맺음말

청주지역 선사유적의 조사와 연구는 1970년대부터 모두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장한 현대화 작업으로 찾아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루봉동굴이 광산 활동으로 동굴이 파괴되면서 나타났다면, 아득이 고인돌은 대청댐 건설로 따른 수몰지역 조사로 밝혀졌으며, 소로리와 만수리는 모두 오창·오송과학단지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조사연구조사 과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술조사만으로 진행된 공주 석장리나 연천 전곡리유적들과는 다르게, 모두 구제발굴로 진행되어서 올바른 유적 보존을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각기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문화로써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크게 다행으로 생각할 일이다. 하지만 선사문화 연구는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과학적 방법과 팀워크로 전개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고 수립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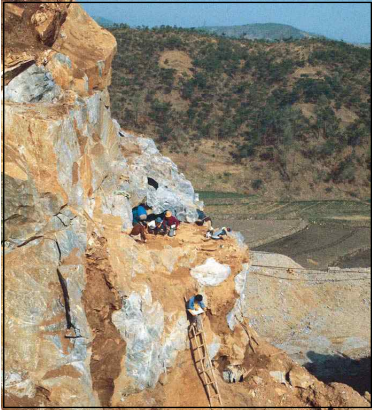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그리고 더욱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선사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여기에 관심을 덜 갖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태어나는 우리의 청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 그 문화를 향유하며, 또한 문화 융성을 위해 노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는 ‘맑은 고을(淸州)’로 다시 태어나서 큰 세계를 향하는 문화 감각과,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나라에도 우리의 긍지를 크게 드높이는 시대의 기수인 입장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논문접수 : 2014. 9. 20, 심사시작 : 2014. 10. 5, 심사완료 : 2014. 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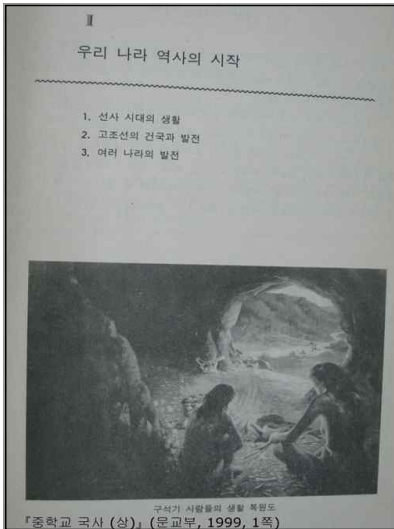
주제어 : 청원의 선사문화, 청원 두루봉동굴, 홍수아이, 청원 소로리유적, 소로리 법씨, 청원 만수리유적, 청원 아득이 고인돌
--



<사진1> 두루봉 2굴 발굴 모습(1977, 2차)



<사진2> 망치·뼈 화석 출토모습 (2굴,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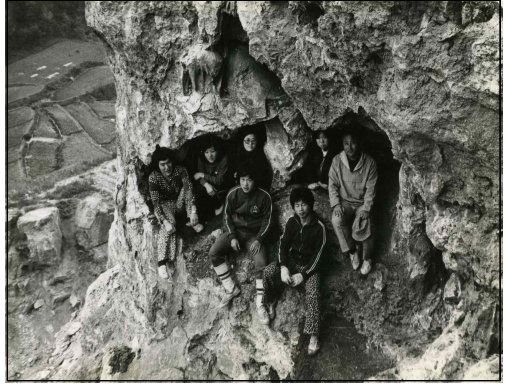
<사진3>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소개된 2굴 생활모습 복원도(문교부, 1999, 1쪽)



<그림4> 15굴 집터 복원한 모습(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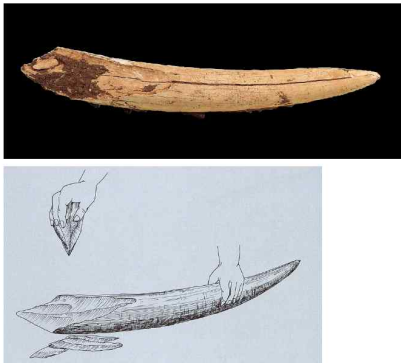
<그림5> 새굴 출토 치레걸이



<사진6> 새굴 발굴기념(1980)



<사진7> 옛코끼리 상아 출토 모습(새굴,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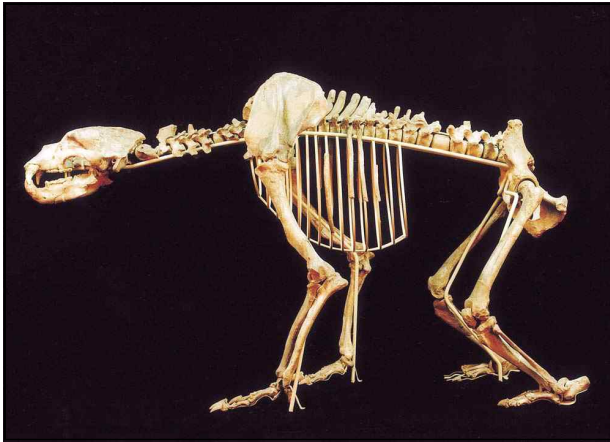


<사진8> 옛코끼리 상아(새굴, 길이 16.8cm)와 짚개로 상아를 찍는 모습(복원)과 찍힌자국



<사진9> 처녀굴 발굴 모습(1981)

<사진10> 처녀굴 동굴곰 출토(1981)



<사진11> 복원된 동굴곰(2005)



<사진12> 쌍코뿔이 아래턱 출토 모습(처녀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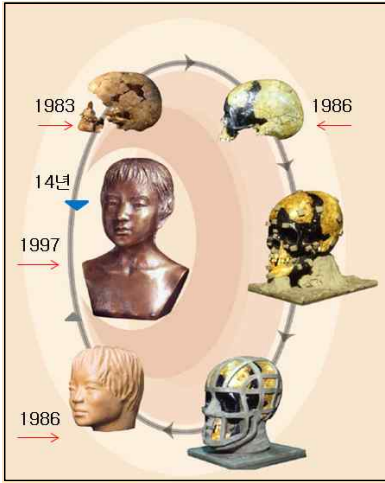
<사진13> 홍수굴 첫 답사(1982. 12. 6)



<사진14> 홍수아이 1호 발굴(박희현 교수와 함께, 1982. 12)



<사진15> 홍수아이 1호 출토 모습(홍수굴, 1982)



<사진16> 홍수아이 1호
복원과정(1986~1997)



<사진17> 복원된 홍수아이 1호 (1997)



<사진18> 명치대학 개교 123주년기념 특별 전시회의 전시실과 홍수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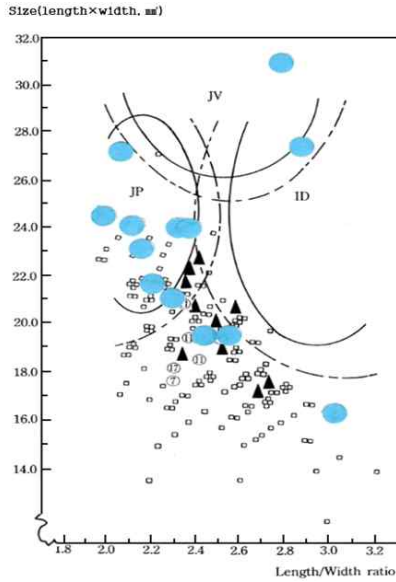
<사진19> 소로리유적 발굴 전경(1997~'98)



<사진20> 토탄 II구역 발굴장(2001)



<사진21> 고대벼(자포니카)의 출토 상태 모습과 소지경이 잘라진 모습



<사진22> 청주 소로리 · 고양 가와지 벼씨의 분포(박태식·이용조, 2004)
 (○ 청주 소로리벼씨 · ▲ 고양 가와지 I형 벼씨 · □ 고양 가와지 II형 벼씨)



<사진23> 제1회 소로리범씨 국제회의(2002. 12. 18, 충북대학교)

The screenshot shows the BBC News homepage with the following content:

- Navigation:** Home, News, Sport, Radio, TV, Weather, Languages. Search bar and "Low graphics | Accessibility help" link.
- Header:** "Watch One-Minute World News" and "News services: Your news when you want it".
- Article Title:** "World's 'oldest' rice found".
- Author:** By Dr David Whitehouse, BBC News Online science editor.
- Summary:** "Scientists have found the oldest known domesticated rice. The handful of 15,000-year-old burnt grains was discovered by archaeologists in Korea."
 - Text: "Their age challenges the accepted view that rice cultivation originated in China about 12,000 years ago."
 - Text: "The rice is genetically different from the modern food crop, which will allow researchers to trace its evolution."
 - Text: "Today's rice is the primary food for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with 576,280,000 tonnes produced in 2002."
 - Text: "Rice is especially important in Asia, where it is responsible for almost a third of all calorific intake."
- Image:** A photograph of ancient, burnt rice grains. Caption: "Rice was on the menu for ancient man".
- Section: "Tracer of evolution"**
 - Text: "The oldest known rice was discovered by Lee Yung-jo and Woo Jong-voon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 Text: "They found the ancient grains during excavations in the village of Sorori in the Chungbuk Province."
 - Image:** A photograph of laboratory equipment, likely used for genetic analysis of the ancient rice.
- Related Links:**
 - SEE ALSO:
 - Scientists detail rice code (04 Apr 02 | Science/Nature)
 - Puncturing the ego gene (04 Apr 02 | Science/Nature)
 - Rice genome falls to science (26 Jan 01 | Science/Nature)
 - RELATED INTERNET LINKS: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Riceweb
 - THE BBC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XTERNAL INTERNET SITES.
 - TOP SCIENCE & ENVIRONMENT STORIES:
 - Night-sky image is biggest ever
 - Phantom Eye 'spy plane' unveiled
 - Higgs discovery rumour is denied
- Left Sidebar:** "News Front Page" with regional links (Africa, Americas, Asia-Pacific, Europe, Middle East, South Asia, UK, Business, Health, Science & Environment,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Also in the news" section.
- Bottom Left:** "RELATED BBC SITES" including SPORT, WEATHER, ON THIS DAY, and EDITORS' BLOG.

<그림24> BBC 뉴스(인터넷판)에 소개된 “세계 최고의 벼가 발견되다” (2003. 10. 21)



<사진25> 청원 만수리 유적 전경



<사진26> 만수리 유적 발굴 전경



<사진27> 만수리 유적 현장을 방문한 전국 학예사들(2007)



<사진28> 만수리 현장 지도위원회 회의(발굴유적 안)



<사진29> 만수리유적을 방문한 애리조나대 A.J.T. JULL교수일행 (2007.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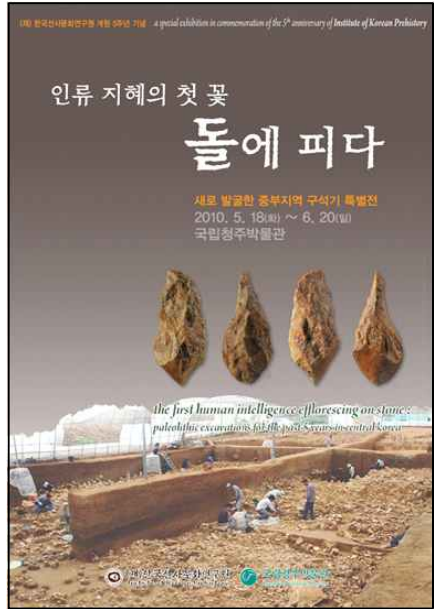
<사진30> 제1회 만수리 워크샵에서 기초강연을 하는 필자(2007. 10. 6)



<사진31> 출토유물을 실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32> 앙리 드 룬리 교수와 스타 프로젝트로 만든 “한국의 전기 구석기문화” (2012) 책자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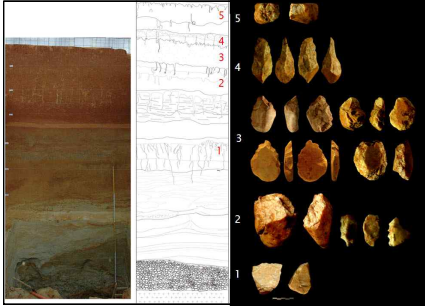
<사진33> 한국선사문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특별전(「인류 지혜의 첫 꽃 돌에 피다」 2010. 5. 18~6. 20, 국립청주박물관)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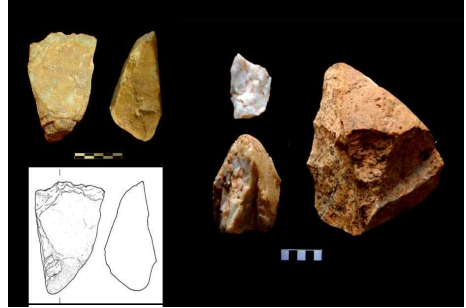
<사진34> 한·일 만수리유적 공동연구협약 체결기념(2010.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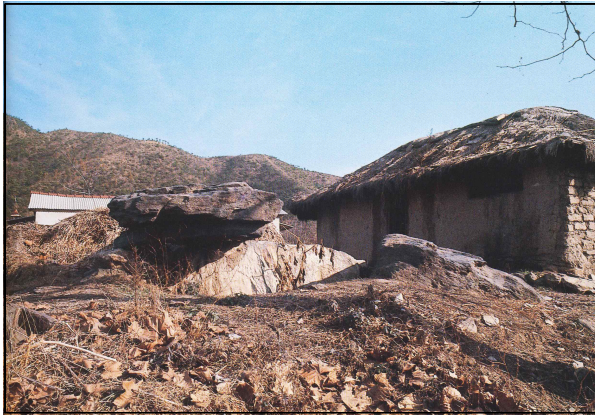
<사진35> 학술발표 후 기념 촬영(2012. 11. 26)



<사진36> 만수리 1지점 층위 단면
· 문화층과 출토석기



<사진37> 50만년으로 측정된
제1문화층의 석기



<사진38> 아득이 유적 전경(발굴 전,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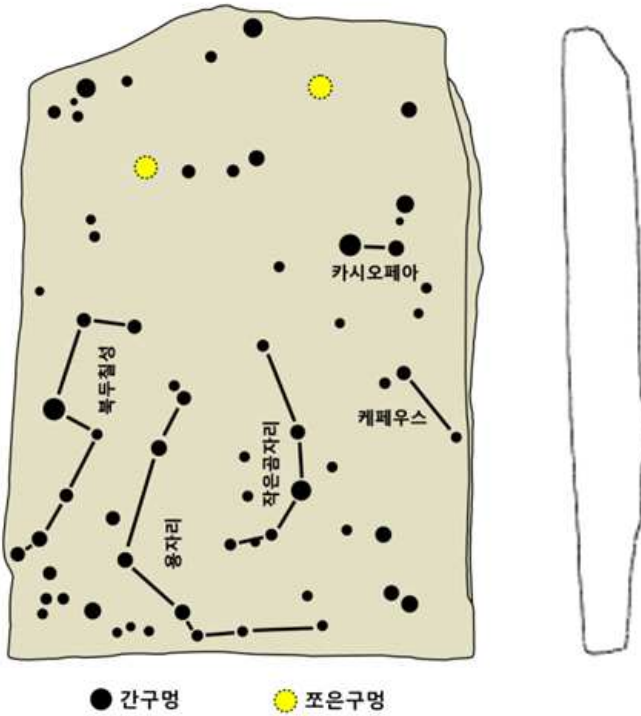
<사진39> 곁흙 제거 후의 아득이 고인돌(1977)



<사진40> 아득이 선돌(1977)



<사진41> 별자리 돌판 출토(1977)



<사진42> 별자리돌판

【참고문헌】

- 이용조, 1979.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발굴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166쪽.
- _____, 1984. 『한국 구석기문화의 연구(Ⅱ)』, 탐구당, 412쪽.
- _____, 2004. 「청원 소로리유적 A지구 토탄 II구역 2차 학술조사」, 『청원 소로리유적 범씨 출토 토탄층 학술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청주문화방송·한국마사회, 1~26.
- _____, 2006. 「두루봉 연구 30년」, 『先史와 古代』 25, 한국고대학회, 35~78.
- _____, 2007.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의 발굴과 의미」, 『제1회 선사문화 세미나 :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 한국토지공사 오송산업단·(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13~43.
- _____, 2009. 「중원지역의 구석기문화 -연구조사와 그 의미」 『中原廣場』 1, 중원포럼, 11~34.
- _____, 2010. "New Advance for Sorori Rice Research" The Speech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Yunxian Man' in Commemoration of its Discovery of 20th Anniverseries (Habei : China), 83~84.
- _____, 2011.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학술발굴과 세계의 선사고고학」, 『연보』 20, 충북대학교 박물관, 62~94.
- _____, 2012. 「교토 국제회의와 청원 만수리유적」, 『연보』 21, 충북대학교 박물관, 60~81.
- 이용조·박선주, 1991. 『청원 두루봉 홍수굴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144쪽.
- _____. 박태식·우중윤, 2014. 「고양 가와지 범씨의 발굴과 농업사적 의미」, 『고양 가와지 범씨(Ⅱ) : 국제회의』, 고양시·(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1~60.
- _____. _____ 편, 2000. 『淸原 小魯里 舊石器遺蹟』, 충북대학교 박물관·한국토지공사, 631쪽.

- _____ · 우종윤, 2006. 「청원 두루봉동굴 유적의 고고학적 접근」, 『先史와 古代』 25, 한국고대학회, 99~139.
- _____ · _____ 편, 2003. 『第1回 國際學術會議: 亞細亞의 先史農耕과 小魯里별씨』, 충북대학교 박물관 · 청원군, 168쪽.
- _____ · _____, 2014 "The Oldest 'Cheongju Sorori Rice' 17,000BP : its Investigation and Significance" Presented Paper to *International Symp. on Paleoanthropology in Commemoration of the 85th Anniversary of the Discovery of the First Skull of Peking Man* (Beijing : China, 2014. 10. 20 ~ 27)
- _____ · _____ · 하문식, 1996. 「清原 두루봉 興洙窟의 舊石器文化」, 『東北亞 舊石器文化』, 韓國 國立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 中國 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 39~61.
- _____ · 하문식 · 조태섭, 1999. 「청원 두루봉 새굴 · 처녀굴 출토 유물의 고고학적 연구」, 『先史와 古代』 12, 한국고대학회, 101~189.
- Yung-jo Lee · Su-hwan Lee, 2008. "On the Ursidae Fossil from Cheonyeo Cave, Durubong Cave Complex, Korea" *The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6, 7~24.
- de LUMLEY, Henry, 1969. "A Paleolithic Camp at Nice" *Scientific American*, 220-5, 42~50.
- Kyeong Ja Kim, Yung-Jo Lee, Jong-Yoon Woo, A. J. Timothy Jull, 2013. "Radiocarbon ages of Sorori ancient rice of Korea"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94, 67~79.
- 박선주 · 이용조, 1996. 「청원 두루봉 홍수굴 출토 후기 홍적세 어린이 뼈연구」, 『東北亞 舊石器文化』, 韓國 國立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 中國 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 63~82.
- 박창범 · 이용복 · 이용조, 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3, 한국과학사학회, 3~18.

- 박태식, 2009.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된 벼의 전래경로에 대한 고찰」,
『한국작물학회지』 54-1, 119~123.
- 허문희 · 이용조 · 우종윤, 2004. 「청원 소로리유적 토탄층 출토 볍씨의 형태적 고찰」, 『청원 소로리유적 볍씨 출토 토탄층 학술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 청주문화방송 · 한국마사회, 49~58.